

보도시점

배포시

배포

2025. 4. 30.(수)

##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의 ‘민간협력전대차관’은 국제사회 논의동향 및 개발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.

### <보도 내용>

□ 2025.4.30. 경향신문(가판)은 「윤 정부의 수상한 캄보디아 원조」 제하의 기사에서,

- ① ‘민간협력전대차관’ 방식은 공적개발원조(ODA)에 전례없는 형식
- ② ‘민간협력전대차관’은 구체적 사업을 정하지 않고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
- ③ 다른 개도국에 대한 전대차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출입은행의 보고서는 ‘민간협력전대차관’에 부정적 입장 피력
- ④ 통일교 前 고위간부 등이 ODA 자금으로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하였습니다.

### <정부 입장>

- ① ‘민간협력전대차관’은 개도국의 민간부문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모델로, 국제사회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.
  - OECD는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(PSI, Private Sector Instrument)을 강조하면서, '23.9월에는 PSI의 ODA 계상 방식을 발표하였으며\*, '24.5월 우리나라에 대한 ODA 동료검토(Peer Review)에서는 개도국 민간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.\*\*

\* DAC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cs : Private sector instruments

\*\* To further expand private sector operations and private finance mobilisation including from investors in partner countries, Korea should provide high-level political leadership and signal support for implementing agencies to increase their risk appetite for private sector operations.

- 독일, 프랑스, 일본과 같은 주요 공여국들 또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도국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\*

\* '22년 기준(백만불, 증여등가액) : (獨) 588 (佛) 650 (日) 289

- 이러한 개도국의 민간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ODA 지원방식 다변화를 위해, 우리 정부도 민간협력전대차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② '24~'26 EDCF 중기운용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, 민간협력전대차관의 지원분야는 개발효과성과 국제사회 관심이 높은 기후변화, 양성평등, 미소금융, 보건 등 분야로 한정할 계획입니다.

- 또한, 민간협력전대차관은 국내 금융기관이 출자한 개도국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.

③ 수출입은행의 '방글라데시 내 전대차관 현황 및 지원가능성 검토' 보고서는 수출입은행 현지사무소에서 해당 국가의 특수한 여건(열위한 재무구조 및 낮은 신용도) 하에서 전대차관 활용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.

- 참고로, 금년 예산에 민간협력전대차관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.

④ OECD 통계지침\*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(제7조)상 종교시설은 ODA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실제 EDCF에서 지원한 사례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\* Converg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for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and the Annual DAC Questionnaire ('24.9.4일)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	책임자	과 장	서영환 (044-215-8770)
		담당자	사무관	신태섭 (044-215-8771)
	수출입은행	담당자	공보팀장	최동건 (02-3779-6067)
		담당자	민간사업팀장	신상훈 (02-6255-5305)